

# 설 연휴 스포츠로 더욱더 즐겁게

민족 최대 명절인 설연휴 기간에도 다양한 스포츠가 안방은 물론 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6일 설 연휴 시작과 함께 이틀간 강원도 평창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2년을 앞두고 첫 테스트이벤트인 스키월드컵이 개최된다.

유럽축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국가대표 '절친' 기성용(27·스완지 시티)과 이청용(28·크리스털 팰리스)의 '코리아 데비'가 많은 축구팬들의 발목을 설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선두권 타팀이 치열한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역시 연휴 기간 내내 활발하게 경기가 진행된다.

## ◇평창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2018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9~25일) 개막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첫 테스트이벤트가 6일과 7일 양일간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다.

첫 테스트이벤트는 2016 아우더 국제 스키연맹(FIS) 알파인 스키월드컵(남자부)이다. 스키 강국 캐나다, 독일 등 총 17개국에서 84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 선수로는 김현태(26·울산시)가 유일하게 출전한다. 당초 이

## 6일 정선에서 스키월드컵 EPL '쌍용더비' 활약 관심 독일서는 구자철 등 출전 전주 KCC 울산 모비스 한판

대회에 한국 선수는 출전하지 않기로 했다. 경험 부족과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김현태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가 치러질 정선 알파인경기장에서 극동 테스트편(공식연습)을 가졌고 자신감을 얻으며 출전 의사를 드러냈다.

테스티이벤트는 올림픽을 앞두고 시설과 경기장 코스 등을 점검하고 운영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의 공정률은 82%. 테스트이벤트는 기본적인 운영 골격이 잡힌 60% 수준만 넘어도 개최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본 대회에서 알파인 스키 활강과 슈퍼대회전이 열린다. 세계적인 스키장 설계자 바나드 루시가 디자인한 가운데 가리왕산 기슭의 지형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코스가 어렵다는 평가다. 테스트이벤트는 2017년 4월 아이스하키세계선수권대회까지 총 28차례(올

림픽 종목 23회·패럴림픽 종목 5회)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 ◇해외축구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태극전사들은 설 연휴기간에도 뜨거운 땀방울을 그라운드에서 쏟아낼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대결은 '절친' 기성용(27·스완지 시티)과 이청용(28·크리스털 팰리스)의 '코리아 데비'다. 스완지시티와 크리스털 팰리스는 오는 6일 자정 웨일스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른다. 지난해 12월 두 팀은 한 차례 맞붙었다. 당시 기성용과 이청용은 모두 교체출전해 '쌍용더비'를 치렀다. 무승부로 그친 지난 대결이 이번에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날지 관심이 모인다. 손흥민(24)의 토트넘은 같은 시각 왓포드를 홈으로 불러들여 대결을 펼친다. 손흥민의 득점 사냥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도 기대가 쏠린다.

같은날 독일에서는 구자철(27), 홍정호(27), 지동원(25)이 아우크스부르크와 잉골스타트의 경기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세 선수는 지난 80일 나란히 그라운드를 누비며 예열을 마쳤다. 같은 시간

도르트문트의 박주호(28)도 헤르타BSC를 상대로 신발끈을 조여맨다.

## ◇프로농구

정규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는 프로농구는 설 연휴 동안에도 선두 다툼과 함께 치열한 순위 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선두 울산 모비스와 3위 전주 KCC간 승차는 1경기 만에 불과하다. 설 연휴 기간 선두권간 맞대결은 없지만 아직까지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놓칠 수 있다. 모비스는 7일 9위 창원 LG를 홈으로 불러 들인다.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LG이지만 최근 2위 고양 오리온을 대파하며 고춧가루를 뿌렸다. 9일에는 부산 kt와의 원정을 앞두고 있다. 플레이오프를 향한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 kt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쉽지 않다. 오리온은 6일 인천 전자랜드, 8일 서울 삼성, 10일 서울 SK와 차례로 맞붙는다. '뽕당뽕당' 일정이어서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는 KCC는 7일 kt와 부산 원정을 치른 뒤 창원으로 이동해 9일 LG와 경기한다. 두 팀 모두 하위권 팀이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상대다. /김민근 기자

## 첼시, 10경기 연속 무패... 13위 도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10경기 연속 무패(컵대회 포함)를 질주했다.

첼시는 4일(한국시간) 영국 왓포드의 비커리지 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왓포드와의 경기에서 0-0으로 비겼다.

프리미어리그 8경기 연속 무패(3승5무)를 달린 첼시는 7승 8무9패(승점 29)로 순위를 13위까지 끌어올렸다. 불과 한 달 전 강등권 경쟁을 벌였던 첼시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첼시에는 아쉬운 무승부였다. 첼시는 디에고 코스타를 최전방에 둔 체 세스크 파브레가스, 윌리안, 오스카 등으로 공격진을 꾸렸다. 존 오비 미켈과 마티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첼시는 후반 들어 공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왓포드에는 골키퍼 고메스가 버티고 있었다.

후반 15분 마티치와 25분 오스카의 중거리 슈트는 모두 고메스의 선방에 막혔다. 후반 33분 브라-슬라프 이바비치의 결정적인 슈트 역시 고메스의 손을 피하지 못했다.

첼시는 예당 아자트를 투입해 골을 노렸지만 굳게 닫힌 왓포드의 골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김민근 기자

## 석현준, 시즌 12호 포르투 데뷔골 작렬

지난달 포르투갈 명문 FC포르투로 이적한 석현준(25)이 데뷔골을 터뜨렸다.

포르투는 4일 오전 5시(한국시간) 포르투갈 바르셀로스에서 열린 2015~2016 포르투갈컵 4강 1차전에서 길 비센테(2부 리그)에 3-0으로 승리했다.

석현준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출전해 호시탐탐 득점 기회를 노렸다.

후반 14분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미구엘 라운이 크로스를 올렸다. 석현준은 전진해있던 상대 수비진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히 뚫고 골키퍼 바로 앞에서 헤딩슛을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달 FC포르투 유니폼을 입은 후 처음으로 터뜨린 득점이다.

시즌 전체로는 열 두번째 골이다. 석현준은 올 시즌 비토리아 세루발 시애틀 정규리그 9득점을 포함해 모두 11골을 기록했다. /김민근 기자

# ‘돈보다 꿈’ 행동으로 보인 ‘빅보이’ 이대호



## 소프트뱅크 18억 제시 불구 주전 활약 최대 400만 달러 시애틀 마이너리그와 계약

에 초청 선수로 합류시킨다고 발표했다. 세간의 기대와 다르게 계약 자체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마이너리그 계약이며 주전으로 활약한다고 해도 최대 400만 달러(약 48억원)밖에 받지 못한다.

지난해 이대호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받은 연봉은 5억엔(약 50억 9000만원)이다. 일본 무대 외국인 최고 연봉자였다. 그는 일본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오르며 몸값을 했다.

이에 소프트뱅크는 이대호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올 시즌하루 구단 회장까지 나섰다. 일본언론들이 이대호의 계약은 3년 18억엔이었다.

파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대호는 애초에 '미국 진출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메이저리그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야 한다'며 잔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해가 넘어가고 1월이 다 흘러가도록 이대호의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유력한 계약 파트너로 꼽혀왔던 팀들이 1루수를 속속들이 영입하면서 이대호의 계약도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다.

소프트뱅크는 이대호에게 "잔류 가능 기한은 1월말까지"라며 언론을 통해 압박을 했다. 일본매체들은 이대호가 원하는 계약 조건을 찾지 못해 다시 소프트뱅크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이에 어쩔수없이 미국에서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와 묵묵히 훈련을 하던 이대호는 한국과 일본에 '깜짝' 계약 소식을 전했다.

돈만 보면 이해하기 힘든 선택이다. 더욱이 마이너 계약이다. 이대호는 마이너리그 계약은 절대로 맺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지만 도전을 위해 한 발 물러섰다. 그만큼 이대호의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열망은 강했다.

단순히 빅리그의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의 수준이 아니다. 이대호는 1년짜리 마이너 계약이라도 맺은 후 실력으로 가치를 증명해내겠다는 심산이다. 주전 경쟁을 넘어 성적을 낸 후 1년 뒤 대박 계약을 노린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대호에게 기대가 된다.

이대호는 2011년 시즌을 마치고 일본 무대 진출을 선언했다. 롯데는 이대호에게 4년 총액 100억원 계약을 제시했다. 4년이 지나 자유계약선수(FA)들의 몸값이 폭등한 지금도 총액 100억원에 도달한 선수는 없다.

그때도 이대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택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도 녹슬지 않은 실력을 뽐내며 자신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이제 이대호는 일본무대보다 더 큰 빅리그에 도전한다. 그때보다 상황이 어렵다. 우선 백업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고, 주전 1루수 아담 린드워드도 자웅을 겨뤄야 한다.

목심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던 이대호가 다시 한 번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민근 기자



LetsRun FARM 장수 (구.장수육성목장)

우리나라 말 산업을 견인하는 전초기지입니다.

LetsRun FARM 장수 는

경주마 및 승용마를 아우르는 명마생산의 메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천연의 목가적 풍경과 다양한 말 문화 체험프로그램으로 최고의 힐링 쉼터를 제공합니다.

명마 생산과 육성의 메카 LetsRun FARM 장수